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01. 21.(목) 즉시 보도 가능		
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		조직위원장	고문삼	☎ 762-3091
		사무국장	허상보	☎ 762-3091

제주 만감류, 수입 만다린과 소비자 비교 평가서 선호도 우위

- 지난 20일 휴애리자연생활공원서 ‘제주 만감류 시식회’ 개최 -
- 평균 당도 14브릭스…제주 만감류 종합적인 맛 완성도에서 우위 -

□ (사)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(위원장 고문삼, 이하 ‘조직위’)는 제주산 만감류가 수입산 만다린과의 소비자 비교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.

- 조직위는 지난 20일 휴애리자연생활공원에서 소비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‘제주 만감류 시식회’를 개최했다.
-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는 미국산 만다린에 대응해, 제주 만감류의 품질 경쟁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.

□ 시식 평가는 제주 만감류 3개 품종(한라봉, 레드향, 써니트)과 수입 만다린을 각각 1대 1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. 참여자들은 품종별 블라인드 시식을 실시한 뒤, 스티커 투표를 통해 선호도를 평가했다.

* 스티커 투표 참여 인원: 한라봉 256명, 레드향 236명, 써니트 208명

- 비교 대상인 수입 만다린은 ‘온주감귤’로 표기됐다. 이는 학술적으로 온주감귤(Citrus unshiu) 계열에 속하는 동일 품종군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, ‘수입산’이라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맛·향·식감 등 본질적 품질 요소만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.

□ 평가 결과, 제주 만감류 전 품종은 수입 만다린 대비 24.6~114.7%

높은 선호도를 보였다.

* 수입 만다린 대비 **한라봉 24.6%, 레드향 114.7%, 써니트 63.3%** 선호

- 한라봉은 깊은 향과 맛의 조화에서, 레드향은 새콤달콤한 맛의 균형에서, 써니트는 부드러운 과육과 껍질 벗기기 편한 특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- 반면 수입 만다린은 전반적인 품질은 제주 만감류와 유사했으나, 신선도와 향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.
- 참여자들은 제주 만감류가 단순한 당도를 넘어 향미의 깊이, 과육의 식감, 농장에서 갓 수확한 신선도 등 종합적인 맛의 완성도에서 우수하다고 응답했다.
- 한 참여자는 “당도가 높은 것도 좋지만, 제주 만감류는 특유의 풍부한 향과 신선한 과즙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느낄 수 있었다”고 말했다.
- 조직위는 오늘 3월 천혜향을 대상으로 한 추가 비교 시식회를 개최해, 제주산 만감류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제주 감귤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.
- 고문삼 조직위원장은 “무관세 수입 만다린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, 제주 만감류는 새콤달콤한 맛의 조화와 신선함, 풍부한 향 등 다양한 강점을 갖추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”고 말했다.
- 한편,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는 11월 19일(목)부터 23일(월)까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,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누리집(www.jicexpo.com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